

국정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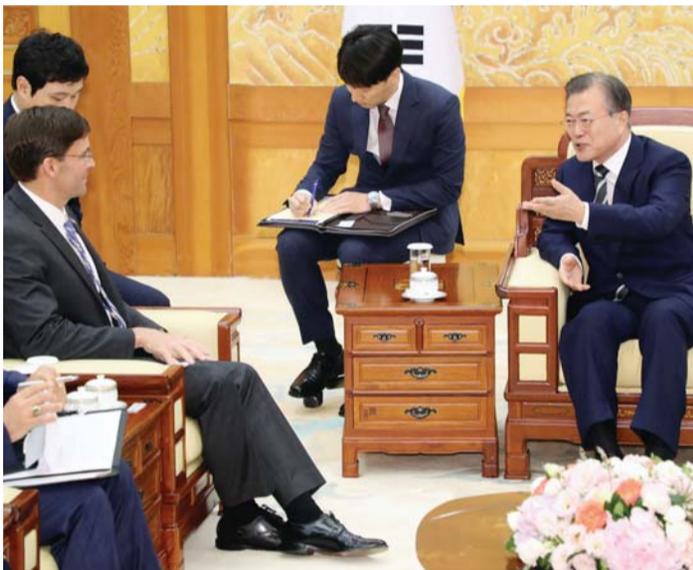


제74주년 광복절, 독립기념관에서 열려
독립유공자·사회단체 대표 등 1800여 명 참석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8월 15일 오전 10시 독립기념관에서 독립유공자와 각계각층의 국민, 사회 단체 대표, 주한외교단 등 1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우리나라 독립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장소인 독립기념관에서 경축식을 개최하는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15년 만이다.

‘우리가 되찾은 빛, 함께 밝혀 갈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경축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선열들의 독립 염원의 뜻을 이어받아 미래 세대들을 위한 진정한 광복의 길을 열어가겠다”는 결기를 다짐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 마크 에스퍼 美 국방장관 접견
“한미동맹 점점 공고,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

문재인 대통령은 8월 9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을 접견하고 전시 작전권 전환 등 한·미 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에스퍼 장관에게 “에스퍼 장관이 공고한 한미 동맹을 이어갈 책임자라고 믿고 있다”며 “한미동맹이 점점 공고해지고 있는 만큼 북·미 간 비핵화협상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에 에스퍼 장관은 “취임한 지 12일이 됐다. 첫 번째 해외순방으로 인도·태평양지역을 정했는데, 이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번영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거

한국자유총연맹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72
☎ (070)7122-8057

◆시·도지부 연락처

- 서울 (02) 849-7871
- 부산 (051) 808-7960
- 대구 (053) 621-9880
- 인천 (032) 868-0113
- 광주 (062) 672-5004
- 대전 (042) 242-7601
- 울산 (052) 276-4400
- 세종 (044) 865-4522
- 경기 (031) 235-6166
- 강원 (033) 254-6670
- 충북 (043) 253-7770
- 충남 (041) 881-6045
- 전북 (063) 252-1797
- 전남 (062) 654-2340
- 경북 (054) 973-6312
- 경남 (055) 282-2332
- 제주 (064) 751-0191

자유칼럼

정전협정 66주년을 되새기며... 남북 간 신뢰증진 방안 실천되길 바라



전인범 |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전 육군 특전사령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됐다. 3년간 치열하게 일진일퇴를 거듭하던 6·25 전쟁은 정전상태로 들어갔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66년이 되도록 남북 간의 정전상태는 여전히 그대로다. 동족상잔의 6·25전쟁은 김일성의 지시와 명령으로 시작됐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군인 14만여 명과 외국군 4만여 명이 전사했다. 남한 주민 중에 전재민(戰災民)과 사망자는 약 150만여 명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남한의 인구가 약 2000만 명이었다고 보면 민간인의 피해가 얼마나 컸나

를 짐작할 수 있다.

정전협정은 본문 5조 63항과 부록 11조 26항으로 구성되었다.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DMZ)의 설정,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시위원회 설치, 전쟁포로 교환, 고위급 정치회담 등에 관하여 규정했다.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전쟁 쌍방의 군

는 다른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어느 국가나 계속해서 과거에 발이 묶이면 발전이 있을 수 없으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6·25전쟁은 북한이 가해자이며 우리가 피해자이다. 시야를 달리해서 한반도 문제를 보자. 지금 우리 국민은 북한의 비핵

따라 주면 남북한이 다 같이 추구하고자 하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더욱 큰 공감대와 진정성이 느껴질 것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지난해 합의한 9·19 남북한 군사합의는 남북 상호 간의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에 대한 기대와 성과가 어떻게 나올 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앞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정에 병행해 상호 간의 신뢰 증진 방안이 실천되기를 바란다.

정전협정 66주년을 되새기면서 지난날 6·25전쟁을 통해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의 희생과 비극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앞으로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한 실제적 조치가 구체화 한다면 조금이나마 과거의 희생과 비극을 치유하는 단초가 되고, 또한 우리 국민들도 그들의 잘못에 대해 어느 정도 관대해질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본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북한의 실제적 조치
과거의 희생과 비극을 치유하는 단초

사령관 간의 서명이기에 우리 측 서명은 유엔군 총사령관 자격으로 클라크 대장이 했다. 정전협정을 반대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한미상호방위 조약과 한국군의 증편과 원조를 약속받았다. 정전협정을 실제로 서명한 장소는 지금의 공동경비구역이 아닌 이곳으로부터 1.2km 북서쪽에 위치한 건물이다.

현재 한반도 평화의 개념은 지난 역사와

화 진의를 쉽게 믿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북한 지도부도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비핵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준 유연한 자세의 사고방식을 한층 더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6·25 전쟁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에 대해 공감할만한 어떤 행동이 뒤